

2000年代를 向한 都市政策開發의 展望

Prospect of Urban Policy toward the 21st Century

金 儀 遠

(暎園大學校 教授)

〈目 次〉

- I. 序
- II. 2000年代 都市의 특징
- III. 世紀의 轉換과 새로운 都市開發
- IV. 結 語

I. 序

21세기를 展望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나온 20세기의 評價에서 출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20세기에 대한 評價는 그 自體가 하나의 커다란 論題가 될 것이므로 이 문제는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21세기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수년前부터 우리나라도 21세기에 대한 研究가 여러 분야에서 論議되어 왔다.

그러면 과연 21세기를 특징지우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積立된 것을 보면 情報化·國際化·高齡化·成熟化·高學歷化와 分散化 등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情報化時代”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情報化時代가 온다는 것은 明白한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人間性이라고 생각

한다. 地域의 혹은 都市의 人間性이 어떻게 確立되느냐 하는 것을 情報化속에서 論議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울이 情報管理의 中心이 된채 서울에서 配布된 情報로 地方이 움직이는 時代는 종언을 告한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하드웨어는 역시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볼 때 高度情報化社會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發展途上國家의 特性을 吸收해 버리는 힘을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地域이라던가 人間의 아이덴티티를 如何히 確立하느냐 하는 것이 情報化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태리젠스라던가 知識에 있어서도 아티휘살한 인태리젠스와 휴만한 인태리젠스가 對決하는 時代가 올 것이므로 地方에 있어서는 이런 點을 잘 검토해서 情報化社會에 對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銘心할 필요가 있다. 요즘 情報隔差를 없애주는 道具로서 INS 등의 하드웨어는 충분한 힘을 발휘할 것이지만 制度가 그것을 克服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 制度의 基本은 料金이다. 아무리 電信電話

가 보급되어도 料金の 全國劃一化가 되지 않는 한 그 機能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自명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情報隔差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 情報를 가진 곳이 強해진다는 것도 당연한 論理이므로 문제는 情報源으로서의 人間性을 強調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國際化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흔히들 國際化라면 西歐化로 해석하기 쉽고 그것도 시설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國際化라 할 경우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다. 가령 韓國人이란 무엇이나? 韓國의 文化란 무엇이나? 자기가 속하고 있는 地域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란 것을 確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世界中에서 明確한 價値觀도 갖지 않고 經驗도 別로 없는 韓國人이 세계를 휩쓸고 다닌다 해도 「당신은 어떤 사람ियो?」할 때 대답에 궁해지기 마련이다.

우리가 國際化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서는 自己나라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際化란 것은 이 아이덴티티와 海外와의 交流가 主題가 된다. 지금은 밖의 世界와의 交流의 條件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內實을 다지는 것이 더 急先務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욱 21世紀에 있어서의 海外交流의 中心은 歐美나 日本과 같은 先進國보다는 開發途上國의 比重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印度, 中國, 이슬람 등 3개국은 긴 歷史와 文化를 가진 民族들이다. 産業革命에서 脫落된 이들 나라의 人口가 30億이나 된다는 것을 깊이 銘心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이럴때 韓國이 獨自의인 文化를 갖지 않는限 그들과의 交流에 상당한 障礙가 있을 것이란 것

도 明白한 사실이다.

高齡化가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老人問題라던가 老人對策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한다. 그렇다고 老人對策이 필요없다는 말은 아니다. 老人對策이 있기는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必要最小限의 對應에 그쳐야 한다. 老齡化에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高齡者를 어떻게 하면 社會參與를 가능케하느냐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長壽化에의 對應策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앞으로 80才까지 산다할때 75세부터 5년간은 그야말로 老後로서 즐길 수 있게 하고 60세에서 75세까지의 15년간은 年功에 의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社會는 科學技術뿐만 아니라 人間이 쌓아온 經驗이나 年功이 資源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된다. 45세부터 60세까지는 成熟한 勞動力으로서 活動하고 30세에서 45세까지는 바이타리티가 있는 勞動力으로서 일하는 것이다. 20~30세까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高齡化社會에서는 이 年齡層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年齡層은 學校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人生에 있어서 30세 이후의 레루에 타기 위한 訓練이나 選擇의 時代로 해야만 한다.

앞으로 人生 80이라면 이 10년간은 選擇의 時期로 해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合理的일지도 모르겠다. 일정한 職場을 갖지 않고 世界를 또는 國內各地를 알바이트라도 하면서 悠悠自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0세 以下는 좀 論議가 달라질런지 모른다. 따라서 高齡化社會에서는 이와같은 社會制度를 만드는 論議가 先決問題이지 一定年齡以上(65才)의 老人들 全員에 대한 社會保障的發想이라

면 社會는 混亂을 가져오게 된다.

II. 2000年代 都市의 特徵

1. 情報化 社會

1) 情報化의 背景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人類社會는 科學技術의 발달에 힘입어 컴퓨터나 로봇트에 이르기까지 高度情報化處理 능력과 通信技術의 발전을 들 수 있다.

1946년부터 시작된 컴퓨터는 노이만型에서 트랜지스터, IC, LSI를 거쳐 마이크로에렉트로닉스 형태까지 발전하고 있으나 가까운 將來에는 推理와 判斷을 할 수 있는 人間의 思考에 가까운 제5세대의 컴퓨터 出現까지 豫想되고 있다. 더욱 최근 半導體의 高集積化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값도 현저히 低下하고 있고 컴퓨터의 使用料도 급속히 저하하고 있다.

또한 로봇트 등의 産業技術에의 應用도 長足の 발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최근에는 단순한 反覆단계에서 知覺을 갖는 學習機能을 갖는 知覺로봇트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通信技術은 1960년에 레이저 光線을 人工적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이후 이것을 통신에 利用하는데 있어 필수요건인 半導體素子の 개발과 光섬유의 개발로 大量的의 長距離通信이 가능해짐으로써 通信기술에 一大變革을 가져왔다.

2) 高度情報化의 現況

그러면 지금 이 時點에서 情報化의 現況은 어떠한 것인가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로 時間을 다투는 通信需要의 증대라 할 수 있다. 주로 産業에 있어서의 情報處理, 企業內 또는 企業間 네트워크化의 進展에 의해 複시밀通信과 데이터通信需要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 時代前만 해도 빠른것의 代名詞처럼 쓰이던 電報는 電話에 그 위치를 빼앗겼고 電話는 複시밀에 의해 밀려나는 과정에 있다. 現時點에서 電報의 많은 부분은 儀禮的 慶吊電報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産業에 있어서의 情報化는 초기에는 販賣·在庫·人事나 給與 등에 컴퓨터가 쓰여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品質管理와 製品管理에 主役을 담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온라인 제도까지 개발되고 있다.

事務處理部門에 있어서는 小型컴퓨터의 보급으로 事務處理의 능률이 크게 향상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워드프로세서의 製品化에 따라 비약적인 生産性向上이 이루어지고 있다. 製造業에 있어서는 數値制御裝置와 로봇트化의 導入으로 生産시스템은 多品種少量의 製品을 設計·生産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로 조작해서 自動적으로 生産됨으로써 하나의 機械로 많은 종류의 製品을 生産하고 있다.

서비스業에 있어서는 종래 人力에 依存하고 있었던 銀行事務, 티켈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컴퓨터 온라인化에 의한 合理化와 効率化가 크게 진전하고 있다. 또한 航空·鐵道·海運 심지어 劇場座席豫約까지 컴퓨터가 처리하고 있다.

流通業界에 있어서는 POS (point of sale 販賣時點管理) 시스템이 급격히 보급되고 있다.

슈퍼 등의 상품에 붙어있는 막대기표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밖에도 文學多重放送, 衛星通信 (TV會議), 衛星放送, CATV (有線放送), INS

(디지털종합서비스網) 등이 보급단계에 있다.

이와같은 高度情報化時代가 실현되면 産業構造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첫째로 情報化와 관련된 製品을 만드는 이를테면 集積回路産業이나 컴퓨터産業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결과 製造業 가운데서도 電氣機械器具製造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니까 종래의 重厚長大工業은 위축되고 그대신 輕簿短小한 製造業이 크게 진전한다는 말이된다.

둘째로 情報를 활용한 산업이 크게 伸張할 것은 틀림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망시 되는 것이 金融, 保險 부문이라 하겠다. 金融業은 온라인化, 現金自動支拂機 등의 보급으로 情報機器의 導入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高度情報化의 進展에 따라 銀行收入에 占하는 手數料收入의 증대 등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運輸業의 경우를 보면 製品의 輕簿短小化 경향에 따라 다소 침체될 것이나 지금과 같은 大型트럭같은 것은 자취를 감출지도 모를 일이다.

결과적으로 情報化社會下의 産業構造는 3次産業의 比重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지금의 미국처럼 3次産業人口가 70%를 넘는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냐 하는 문제는 있다. 工産品을 만들지 않고 輸入해서 소비만하면서 서비스業에만 몰두하고 있는 社會를 과연 건전한 사회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필자는 얼마전 日本의 某經濟學者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美國은 自動車産業이나 造船·鐵鋼産業같은 重工業은 發展途上國, 이를테면 日本이나 韓國같은 나라에 맡기

고 宇宙航空産業이나 OA機械와 같은 새로운 하이테크分野에 主力을 둔다. 이것은 이미 미국의 基本政策이다」라고. 그때는 별 생각없이 들은 이야기인데 現實적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다. 생각하면 로마나 그리스가 피폐해진 것도 국민들이 서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와 같은 일은 奴隸에게 맡겼기 때문이란 말도 있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깨끗한 일이나 한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文化라던가 科學技術은 위축되기 마련이다. 지금의 미국은 달라貨만 믿고 競争力이나 技術革新이란 기본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지연시키며 前進하려는 경향에 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産業만 번창하게 되어 社會의 根本을 이루는 製造業이 弱화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한때 다니엘 벨이 “脫工業化社會”란 말을 했다. 지금은 情報化社會라고 떠들고 있지만 나에게 말하라면 오히려 情報를 加味한 製造社會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런지 모를 일이다. 製品을 만드는 過程에 情報가 加味되어 밖으로 보기에 輕簿短小化의 時代를 이룬다. 情報化社會라 해도 情報만이 독판을 치는 것이 아니고 情報化가 요령있게 가미된 製造業이 背後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情報만 날라다니는 社會도 사실은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脫工業化이 곧 進歩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물건을 열심히 만들며 땀을 흘리는 나라나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다. 소프트나 서비스니 말은 좋지만 이것들이 지나치게 重要視되는 社會는 어딘가 이상해지기 마련이다.

미국이나 日本의 企業이 生産據點을 海外에 옮긴 것은 多國籍企業의 論理였다. 多國籍企業은 非情한 資本論理에 따라 움직이며 가장 收支

가 맞는 土地에서 事業을 벌리는 것이다. 母國의 雇傭이나 국가의 存續같은 것은 吾不關이란 立場을 取하면서 世界 어느 곳이나 돈벌이가 된다면 떠나버리는 것이다. 國土와 資源의 혜택이 없으면서 人口過密한 우리나라 企業들도 최근 資本의 論理만으로 多國籍企業의 行動을 垂範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擴大될 경우 언젠가는 큰 反動이 온다는 것을 銘心해야 한다. 서비스 産業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製造業은 海外에 進出해도 좋다는 생각은 再考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脫工業化 社會나 情報化 社會란 것에는 반드시 陷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세째로 어쨌든 멀지 않아 이와 같은 情報化 社會가 到來했을 때 就業構造는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 여기서 斷言할 수 있는 것은 製造業의 경우는 附加價値의 增加에 대한 從業員의 증가는 대단히 미미할 것이고 雇傭의 증가는 주로 서비스業이나 都小賣業에서 발생하게 된다. 한편 就業者 가운데 技術者와 事務從事者를 보면 종래 높은 伸張率을 보여 왔던 事務從事者의 증가는 둔화하는 대신 技術者의 증가가 현저해질 것이다.

넷째로 高度情報化 社會가 구현되었을 때 國民生活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사실은 이점이 앞으로의 都市開發政策을 展望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할 수 있다.

高度情報化 社會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상태로서는 不確實한 부문이 많기는 하나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면 ① 勤務形態에 變化를 가져올 것이다. 집에서 근무해도 지장이 없는 많은 職種이 생겨나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은 都市의 郊外化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②

週 30시간의 근무시대가 올 것이므로 餘暇에 많은 시간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동시에 국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觀光休息地의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한편 家庭自動化의 보급으로 家事勞動의 輕減으로 女性들의 社會參與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③ 情報隔差가 是正된다. 地方의 생활환경은 自然環境·住宅 등에 있어서는 大都市보다 優位에 있으나 教育·文化등에는 大都市와의 隔差가 크다. 그러나 情報化 社會가 실현되면 地域教育 시스템의 발전으로 서울에 있는 大學과 地方大學간의 平準化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地域文化가 크게 진흥된다. 따라서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에서의 觀心이 더욱 고조된다. 한편 圖書館情報體制의 완비로 地域의 研究隔差는 적어지겠지만 학생들은 책을 사지 않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3) 情報化 社會가 都市에 미치는 영향

高度情報化 社會가 都市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① 國土構造의 變化가 예상된다. 그것은 本社가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生産機能 즉 工場도 地價가 비싼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다. 종래 工業立地의 決定要因은 주로 勞動力 확보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情報化 社會는 비교적 人口移動을 弱화시켜 주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은 완화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研究와 技術開發部門의 地方移轉 可能性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研究기관의 地方分散을 가로막아온 조건이 市場情報와 技術情報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本社와의 연락不便 및 研究活動에 관련된 서비스와 産業集積의 부족 등이었으나 高度情報化 社會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研究機關의 地方分

散은 대단히 손쉬워졌다.

또한 情報化社會는 複시밀의 보급과 온라인에 의한 사무처리 등으로 出張빈도가 적어짐과 아울러 TV會議의 보급 등으로 遠距離交通量の 감소가 예상된다. 物動量도 지역간 흐름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高度情報化的 다른 하나의 영향은 都市構造의 變化라 할 수 있다. 은행이나 保險會社와 같은 많은 事務處理를 필요로 하는 기관은 獨立한 事務處理센터가 分離되어 郊外에 立地하게 될 것이고 生産과 倉庫機能 등이 大都市를 탈출하게 될 것이므로 그결과 발생하는 移轉跡地에 대한 利用問題가 발생하게 된다.

TV쇼핑이나 無人店舖 등의 등장은 店舖形態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都市内 交通은 小賣業에 있어서의 POS시스템 導入의 진전과 受發注 온라인의 보급에 따라 配達은 더욱 빠른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른바 多頻度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都市高速道路의 수요는 증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21세기에 다가올 都市의 特徵은 情報化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高齡化社會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高齡人口라 말한다. 1986년의 國勢調査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老齡人口는 6.7%이다. 日本이 1985년 통계에서 10.2%로 1割을 넘었고 스웨덴이 16.8%, 英國이 14.9%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낮은 水準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老人 人口比率이 7%에서 10%에 이르는데는 美國이 30년, 日本이 15년, 프랑스에서는 70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高齡化進行속도는 대단히 빠르다고 할 수 있다.

高齡化란 것은 國民의 平均壽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의 平均壽命이 크게 延長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에는 물론 醫術의 발달도 있겠고 충분한 영양의 섭취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戰爭이 없었다는데 主因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의 厚生省 예측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30년후인 2015년의 老齡人口比率이 21.1%에 달한다니 우리나라의 長期展望이 아직 나오지 않아 확실한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30년후이면 대체로 15% 선을 넘을 것 같다. 흔히들 老齡國家란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5%를 넘었을 경우를 말하는데 30년후 65세 이상의 인구가 全國人口의 15%를 넘는다는 것은 우리가 社會政策的見地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序論에서 언급했다 시피 老齡化對策은 단순한 老人對策이 아니고 건강한 몸으로 社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있다. 지금은 우리가 老人이 해야할 領域까지 젊은이들이 獨占하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직업은 언젠가는 老人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守衛(관청, 회사, 창고, 아파트 할 것 없이)나 賣票員같은 직업 말이다.

3. 國際化

한마디로 國際化時代라 해도 대단히 막연하다. 특히 도시의 「國際化」는 그 定義는 물론 이렇다 할 이매지잡기도 어렵다.

或者是 國際化란 西歐諸國의 先進文明을 섭취해서 先進諸國에 가까운 것을 창출하는 것이라

고 말해 왔으나 지금의 國際化는 異質的인 外國文化와의 接觸을 통하여 새로운 文化를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都市의 國際化라 할때는 새로운 時代에 알맞는 都市건설 또는 地域性을 살린 아이덴티티 만들기라고도 말한다.

都市의 國際化는 무엇보다도 금후 사람·물자·정보에 관한 國際交流가 質·量 共히 增大한다는 前提아래 國際交流의 場을 만든다는 하드웨어 즉 國際會議場·호텔·外國人住宅·서비스센터·國際展示場·道路·空港 및 都市景觀 등이고, 나아가 이들 都市施設을 効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즉 案内誘導標識·通譯·生活情報 등의 충실을 말한다. 여기에 이들 일을 담당하는 市民의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都市마다 어떠한 國際化關聯施設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그 都市가 갖는 立地上的의 特性에 左右되겠지만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過慾을 부릴것이 아니라 初期段階에 戰略的特定施設을 定해놓고 이의 早期完成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많은 돈을 들여 거창한 國際會議場을 건설해 놓았다해도 年中 國際會議가 있는 것도 아닌 바에야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몇년전 서울에 살고 있는 外國人에게 실시한 앙케이트를 보고 놀란 것은 그들이 한국의 도시에 대하여 불편한 점이라고 들고있는 문제는 하드웨어 부문보다도 道路標識라던가 英文情報의 부족 등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施設面 整備에의 기대는 時間的으로나 資金面에서 容易한 일이 아니란 것을 甘安한 回答이라고 생각되나 소프트웨어의 정비란 것은 많은 資金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빨리 손을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外國人 觀光客은 觀光코스에 滿足치 않고 歷史觀光 등 특수관광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地方都市의 國際化도 상상 이상으로 進行이 되고 있다.

우리가 國際化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國民 스스로의 資質을 높이는 것이 가장 重要한 일이라 하겠다. 國際化라 해서 세계의 물건이 서울에 있고 세계 각국의 飲食을 서울서 먹을수 있다 해서 서울을 國際化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파리를 國際都市라고 부르는 것은 自己나라 것이 아닌 才能을 파리市民들이 발견하고 이를 키워 세계에 전파시키는 市民들의 능력때문이었다. 피카소가 그렇고 쇼팽이 그렇다. 비단 藝能界뿐만 아니고 한사람의 野球選手, 한사람의 축구선수도 상관없다. 學術研究는 물론 料理에 이르기까지 外國人의 才能을 키울줄 아는 우리 國民의 素養이 前提條件이 되고 있다. 歐羅巴의 都市를 보면 가령 여기가 소크라테스가 언설한 곳이라던가 혹은 이 거리가 나폴레옹이 자주 산보하던 거리라던가 하는 식의 빛인가 사람의 觀心을 끄는 場所가 아직도 남아있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은 적당해 가면 뭔가 가능할 것같은 생각이 든다. 北歐에 가보면 이웃나라에서 道路標識에서 화살표를 붙여 Finland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旅行者들도 “아- Finland는 저쪽 方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되고 빛인가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서울거리에 東京이라던가 뉴욕같은 方向을 표시해 주는 感覺을 갖는 것이 國際化時代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7~8년 전 日本의 高位官吏 한 사람을 초청한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은 직무상 세계 각국의 대도시

를 거의 돌아본 사람이었는데 한국은 初行길이었다. 도착한 첫날 하는 말이 「나는 지구상에 이런 도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보았다. 英文看板도 없고, 漢文看板도 하나 없으니 藥房도 찾을 길이 없다」는 말을 한 일이 생각난다. 民族文化의 창달도 좋고 자주성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서울은 완전히 國際社會에서 外面당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Ⅲ. 世紀의 轉換과 새로운 都市開發

都市計劃事業은 다음 世代를 위해 社會間接資本을 형성해 가는 것인데 觀點에 따라서는 「未來로부터의 受注産業」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企業이나 産業 등에서 高度情報化가 進行되어 앞으로 10년안이면 家庭에까지 普及됨으로서 情報시스템의 綜合化和 統合化가 豫想되는 事態를 都市計劃에 있어서는 오늘의 問題로 파악함과 동시에 適當한 對應策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工場의 인테리젠트化, 事務所의 地域컴퓨터網, 인테리젠트 빌딩의 出現, 家庭의 自動化와 個個社會資本의 事務自動化에서 社會시스템에로의 變化 또는 全體를 綜合내지는 統合하는 인테리젠트시티(知識都市)란 커다란 흐름이 일고 있다. 사람이나 物資나 에너지 등의 움직임이 점점 情報란 것으로 代置代入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와 같은 情報革命을 어떤 학자는 「그것은 人間의 行動이나 活動을 信號化해서 情報空間에 完全히 寫像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企業의 여러가지 去來는 물론 消費者의 행동까지 전부 電子信號化해서 이들 信號가 大量으로 迅速正確하게 전달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해진다. 그렇게 되면 情報空間은 人間과 組織의 活動을 상당한 범위까지 상당한 精密度로 寫像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人間存在의 「참된 空間」과 병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情報空間이 成立함으로써 去來와 活動이 電子信號로서 신속 精確히 處理되기 시작하면 企業組織, 産業構造 나아가 勞動形態 등에도 점차 심대한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科學者들의 豫測이다.

어떤 都市學者는 「21세기의 都市는 인비지불(보이지 않는) 都市가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工業化社會 특히 重厚長大의 裝置型産業時代는 重化學工業 등의 이른바 “굴뚝産業”이 企業의 주종을 이루고 生産에서 流通·消費까지 巨大企業이 비지불핸드(보이는 손)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都市의 構造도 단순해서 그 움직임도 한눈으로 볼 수 있었으나 産業構造가 重厚長大에서 輕薄短小로 移行하고 더욱 하드에서 소프트産業으로 옮겨져 생산양식도 少品種多量에서 多品種少量으로 轉換해 가는데 따라 社會經濟活動도 多樣化 複雜化하여 종래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수많은 主體的 經濟單位가 자유로히 각자 自己目的을 위한 計劃을 하고 行動하는 社會에서는 새로운 市場原理에 의한 인비지불 핸드(보이지 않는 손)가 새로운 社會에 都市어로 유도해 가는 것이 아닌가.

現代都市計劃은 工業化社會의 그릇(器)으로서 計劃되어 왔다. 現實의 都市가 논두렁길을 鋪裝한 정도의 것을 街路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農業社會도 脫皮하지 못한 현실에서 脫工業化 社會에의 對應에 臨迫하고 있다는 것은 韓國의 宿命이기는 하지만 過去를 清算하지 못한채 다음 목표를 향해 뛰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다음 目標란 것이 變해버렸다. 變했다는 것은 量的으로 더욱 큰 새로운 目標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目標가 質的으로 變化했다는 것으로 이는 正히 paradigma의 轉換이라 할 수 있다.

工業社會의 文明構造는 規格化·分業化·同時化·集中化·極大化와 中央集權化의 여섯가지 점에서 특정지워지고 있다.

脫工業社會 내지는 情報化社會의 文明構造는 規格化가 아니고 脫規格化이다. 다시 말하면 多品種少量生産 社會라 할 수 있다. 分業이 아니고 共働의 時代다. 人間이 단순한生産시스템의 部品이 아니고 한사람의 人間으로서 生産에 참가한다. 아침 9時의 打鐘이나 사이렌을 신호로 일제히 작업을 시작할 필요도 없다. 컴퓨터能力의 비약적 擴大에 의해 一括處理方式에서 온라인 리얼타임으로 컴퓨터 相互간의 對話도 될 수 있는 分散處理 方式으로 옮겨가고 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이 아니면 안되는 情報를 除外하고 國內는 물론 國際的 情報의 流通이 가능해 지고 있고 이에 따라 企業의 機能分散의 可能性도 크게 높아졌다. 極大化로 스케일업트를 추구할 필요도 없다. 中央集權化도 오히려 權限을 委讓해 가는 時代로 변했다. 情報네트워크라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垂直的인 權限關係에서 水平的인 協調關係가 社會의 構成 原理 中에 큰 비중을 차지해 가는 추세에 있다.

지금부터 21세기를 향해 高度情報化의 영향이 經濟·社會·文化 등 각 領域에 걸쳐 넓게 깊게 침투해 갈것이지만 그것이 具體的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것은 앞서 言及한 바와같이 現段階로서는 그 누구도 正確한 豫測은 불가능하다.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都市計劃이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으로 發想을 전환한 것처럼 工業

社會에서 高度情報社會에로의 觀念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 規格品的인 人間の 同時 集中型의 通勤, 通勤럿슈 등이 어떻게 되느냐. 후렉스타임이나 衛星事務室의 普及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根本的으로는 都市의 業務機能의 核都市에의 移轉과 나아가서는 地方都市에의 企業의 分散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左右된다. 現在에도 大都市에 就職한 젊은층에서 故郷으로 U턴 하고 싶은 希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얼만가는 있다. 이들 要因이 作用하면 都市計劃에 있어 通勤·通學의 動線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工場도 知識化하고 無人化가 추진될 것이다. 重厚長大의 「煙突産業」에서 輕薄短小의 「無人産業」時代가 오면 지금 우리가 金科玉條로 삼고있는 用途地域制 가운데 특히 「工業地域」이니 「準工業地域」이란 것의 設定도 變身을 强요당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특히 금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豫想되는 소프트웨어産業은 工場의 形態까지 變化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또한 衛星事務室이라던가 在宅勤務時代가 오면 工場도 事務室도 나아가서 住宅까지 形態上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변모할 지도 모를 일이다. 極端的으로 말하면 그것은 出入하는 사람이라던가 物動의 움직임도 크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都市建築物 機能의 類似性 혹은 單一機能에서 複合機能에로의 變化도 짐작할 수 있다. 多目的機能으로 建物을 使用한다고 할때는 특히 建築空間의 유연성이 요구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用途地域에 있어서도 현재까지는 機能純化란 方向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21세기에 있어서의 用途地域은 유연성과 混合의 利用이 더

요구될런지도 모를 일이다.

事務室의 事務自動化가 발전하고 이것이 다시 인태리젠트빌딩이 先進國家에서는 이미 普及되기 시작했다. 건물의 自動化문제는 縱軸의 光섬유 또는 同軸케블 橫軸으로는 바닥 또는 天井의 配線系統의 처리가 건물의 구조상 문제가 크다. 같은 구조상의 문제로서는 利用上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밖에도 照明·騒音과 熱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와이어링이라 불리워지는 配線 등이 在來의 建物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情報化社會에는 빛과 그늘이란 말이 자주 話題에 오른다. 그러나 그 어느쪽도 豫測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卓上議論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측면도 있다. 可能하면 小規模라 할지라도 未來都市의 實驗區를 設定해서 거기서 하이테크 등을 試圖해서 未來都市에 대한 아세스먼트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든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잘 모르기는 하지만 民間企業도 政府와 거의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음으로 적극적인 協力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는 지금까지처럼 受動的인 都市計劃만으로는 行政의 指導力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常識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能動的으로 主體的行動을 하는 都市政策만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情報化社會에 대해서는 그 負的側面을 강조하여 情報化에 否定的態度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文明構造에 移行할 때 낡은 paradigms를 固執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情報化社會란 自己實現의 가능성이 높은 社會이다. 이를테면 컴퓨터는 人工頭

腦, 通信은 人工神經, 入力裝置는 人工五官, 出入裝置는 人工聲帶, 人工手足, 半導體 IC는 人工細胞,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知性에 상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들이 人工補佐役으로서 主人公인 人間에 奉仕하고 人間の 소원달성을 도우게 되는 것이 情報化社會라 할 수 있다.

世上에는 機械無知, 컴퓨터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情報化社會는 機械가 人間에 접근해 오는 時代이다. 기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情報機器를 작동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때 人間이 갖는 頭腦能力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社會가 실현될 것이다.

IV. 結 語

以上에서 21세기에 있어서의 未來都市의 특징과 미래도시정책의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基本視點으로서 ① 2000년대를 향한 도시정책에는 우리나라의 獨自性을 基本으로 할 것 ② 空間的인 「創造的可變性」「展開性」을 가지고 다이내믹한 調和에 근거한 것일 것 ③ 낡은 文化와 새로운 文化, 傳統的技術과 하이테크, 西歐的인 것과 東洋的·韓國的인 것 등이 混然一體가 되어 가지가지의 知的慾求와 創造的 意慾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④ 人間性을 존중하고 生活人으로서의 視角을 염두에 둔 산 都市建設 ⑤ 「職場」과 「家庭」과 「地域社會」와 「自然」이 調和된 都市 ⑥ 都市와 地域의 個性·特質에 걸맞는 選擇의 多樣性確保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視點을 前提로 바람직한 未來都市란 첫째로 서비스經濟化에 대응하여 「사람」과 「情報」를 集積하는 裝置로서는 業務·住宅·商

業·文化 등 다양한 기능이 複合化된 都市를 건설할 것. 둘째로, 高度情報化社會에 대응해서 「情報의 生産地」로서의 도시개발 정비의 전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都市를 情報의 受發信據點化하는 知識都市의 정비 및 이를 지탱하는 情報體系整備를 추진함과 동시에 交通體系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셋째로 國際化에 대응해서 서울 都心에 國際的인 비즈니스業務情報센터로서 24시간 움직이는 도시 건설을 도모하고 또한 外國人이 살고 일하고 움직이기 쉬운 도시로 정비해야 한다. 이경우 國籍이 없는 國際都市보다는 傳統과 風習·

藝術·文化創出에 의한 都市정비가 요구된다. 넷째로 高齡化에 대응하여 접촉의 空間으로서의 公園·道路·廣場 등을 정비하는 등 고밀고밀한 배려와 研究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餘暇化에 대응하여 大都市 周邊에 大規模 觀光休養地 건설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經濟社會的 측면에서의 視角外에 「綠住近接」에 의한 生活空間의 質的向上, 個性 있는 都市건설을 위한 景觀論·色彩論 등 여러 가지 角度에서의 「都市의 演出」이 필요할 것 같다.